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10월 동향

리더 메시지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10월 Newsletter』는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세요’ 및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공시지가’가 주식에 공시됩니다’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AI 관련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와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조직 회복탄력성: 이사회가 우선시해야 할 핵심 과제’,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담은 ‘10월,11월 거버넌스 캘린더’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 전 금융권 **555사** 대상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
- **130사**에서 일부 미흡사항 확인 및 즉시 보완조치 실시 (425사는 '적정' 제출)
- 보안패치·관제체계 및 공격표면 관리 등에서 주요 보완 필요사항 확인

금융보안 관리체계 강화 주요 정책과제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 ▶ 공격표면 관리·인증체계·내부통제 등 보안관리 **전반 전수점검** 및 대응계획 마련
- ▶ 외부 연결 접점 목록화·현행화 및 인증 및 접근통제 권한 명확화·엄격 관리
- ▶ 보안체계 운영·관리 및 **CEO·CISO·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범위 명확화**

② 해킹위협 조기 포착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 금융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 침해위협 정도를 확인·대응할 수 있는 **AI 위협수준 정보체계** 마련
- ▶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 추진**

③ 상시적인 보안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 **대형 금융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 중요한 외부접점 등을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 긴급 시 **수시 점검 근거** 마련 검토·추진

④ 중소형 금융회사 보안관리 지원 강화

- ▶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검토
- ▶ AI 침해위협 대비 **공격표면 점검 (블랙박스 테스트*)**
- ▶ 중소형 금융회사 맞춤형 보안안내서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블랙박스 테스트(Black-box testing): 외부 공격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방식

공격표면 관리뿐 아니라 쏜금융권의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의
책임성 확보, 보안체계 전반 재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예정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세요

영향분석부터 실제 재무제표 작성·검증까지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사항

-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분류 및 중간합계 표시 신설**
- 영업손익 개념 변경**: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 → 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
-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은 산출방법·조정내역 공시
- 통합·세분화 원칙 강화, 영업비용 표시 개선, 현금흐름표 표시 변경**

도입 준비 절차

※ 아래 절차는 예시이며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현행 재무제표와 **新기준** 요구사항 비교
- 회사에 미치는 영향 **잠정 분석**

영향 분석

회계정책 및
판단기준
구체화

- 수익·비용 범주 분류, MPM 등 이슈 식별
- 중요 판단사항 근거 문서화

- 계정과목·매핑체계 등 시스템 정비
- 정보 수집절차 및 내부통제 정비

시스템 및
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
검증

- 실제 데이터로 재무제표 사전 작성·산출·검증
- 비교정보 산출 및 종전 기준과 차이 분석

- 회계정책·데이터·시스템 등 미비점 보완
- 최초 적용 재무제표 작성 준비상태 최종 점검

최종 점검

CHECK POINT

- ✓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12월 결산 분·반기 기업은 1분기부터)
- ✓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 재작성 필요(소급 적용)
- ✓ '26년 재무제표(3분기 포함)에 **新기준서** 예상 영향 충실히 공시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공시지가'가 주식에 공시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원가모형을 적용 중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주식공시 신설

개정 배경

- ⚠ 원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 공시가 권장되나,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음
- ⚠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한계
- ⚠ 공시지가 활용으로 기업의 작성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자자의 토지 가치 정보 접근성 제고, 이미 공시 중인 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가능성도 제고 기대

개정안 주요내용

- 적용 시기**
 - 시행일(202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2026.12.31 종료 연차재무제표부터
 - 소급 적용(K-IFRS 제1008호)하므로 비교정보도 함께 공시
- 적용 대상**
 - 원가모형 적용 토지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해외 소재 토지(감정평가액 등 별도 공시 불필요),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재고자산·투자부동산 분류 토지는 제외
- 공시 기준**
 - 보고기간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 사용 및 해당 기준시점 공시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결정·공시된 공시지가가 있으면 이를 사용 및 기준시점 공시
- 유의사항**
 - 공시지가는 K-IFRS 제1113호상의 공정가치가 아니며, 산정 목적·방법·시점 차이로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음
 -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유의

AI 관련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논의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질문

1 AI를 사용하고 있는가?

- ✓ “우리 회사는 AI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있는가?
- ✓ 자사의 AI 활용 현황은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 외부(제3자) AI 도구의 사용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는가?
- ✓ 사내에 데이터·AI 전문가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가?

2 AI 도입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 우리 회사는 AI 도입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 ✓ AI 도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리스크 성향이 정의되어 있는가?
- ✓ 현재의 접근 방식은 AI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 AI가 ESG 및 고용(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는가?

3 AI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는 갖췄는가?

- ✓ AI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 ✓ AI 거버넌스 구조(조직·역할)가 구축되어 있는가?
- ✓ 3선 방어체계(Three Lines of Defense)*전반이 참여하고 있는가?
- ✓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비하고 있는가?

4 인식과 조직문화는 충분한가?

- ✓ 회사 전반의 AI 및 AI 리스크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 ✓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가?
- ✓ IT·데이터, 재무, 구매, 인사 부서가 AI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가?

AI 감독은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 전략 → 리스크·거버넌스 → 인식·문화로 점진 범위를 넓혀 가야 함

* 리스크 관리 역할을 1선(현업의 리스크 관리), 2선(리스크·준법 부서의 점검·지원), 3선(내부감사부서의 독립적 검증)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체계

조직 회복탄력성

:이사회가 우선시해야 할 핵심 과제

Q. 사이버보안, 지정학적 불확실성, 공급망 차질 등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직(기업)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감독해야 하나요?



이사회는 회복탄력성을 위기 때마다 임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내재화해 상시적인 전략 이슈로 다루어야 합니다.

“ 내부감사인 47%가 비즈니스 회복탄력성을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 ”

이사회 감독 고려사항

① 위기를 '상시적인 기업 운영 환경'으로 인식

- ▶ 사이버 위협, 지정학적 갈등 등은 이제 '기업 운영환경의 지속적 특징'으로 인식 필요
- ▶ 외부 위험을 정기 검토 항목으로만 다루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전략 이슈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② 이사회가 경영진과 점검할 핵심 포인트

- ▶ 전략: 경영진이 수립하고 이사회가 채택·감독하는 회복탄력성 전략이 있는가?
- ▶ 정기 검토: 이사회가 회복탄력성 목표 달성 현황(핵심성과지표, 위험 허용한도 등)을 정기 검토하는가?
- ▶ 사고지휘체계: 회복탄력성 목표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보고체계, 역할·책임이 정해져 있는가?
- ▶ 역량·승계: 회복탄력성 관련 핵심 직책자의 역량 검증과 승계계획이 있는가?

③ 내부감사부서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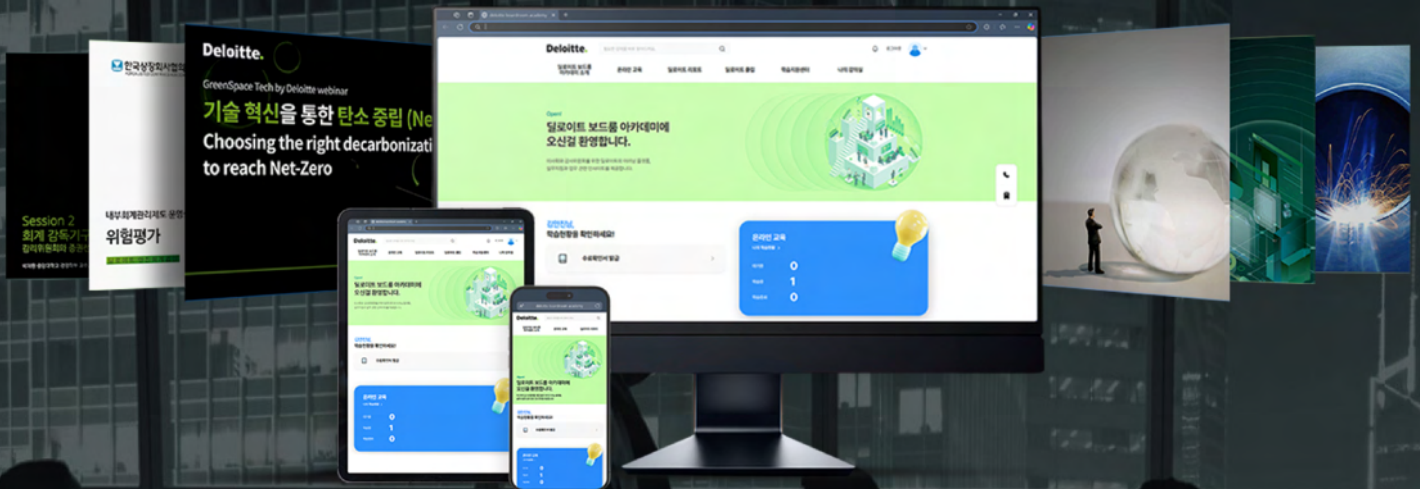
- ▶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통찰을 얻을 수 있음
- ▶ 내부감사부서는 조직의 준비 수준, 위험 노출, 통제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

이사화·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독립이사님/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감사님을 비롯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딜로이트와 외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담은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의 문을 넓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화·감사위원회 핵심 이슈 중심 맞춤형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AI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10 |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01	02	03 개천절
04	05 대체공휴일 (개천절)	06	07	08 한로	09 한글날	10
11 음 9.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상강	24
25 독도의날 음 9.15	26	27 금융의 날	28	29	30	31 회계의 날

이사회

- ✓ 3분기 보고서 의결 (10-11월 중)
 - 회사 3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
- ✓ 3분기 배당 의결 (10-11월 중)
 - 회사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관 또는 이사회에 따른 배당 지급 시기 예외)
 - 회사 (주기적 지정 등 대상인 경우)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수령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검토하고,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 제출

감사/감사위원회

-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사회·감사위원회 캘린더 안내 및 전제사항(중요): 본 캘린더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범용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월별 필수업무 및 권고사항을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별 자산규모, 사업특성 및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계획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간 일정 수립 시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입동
08	09 음 10.1	10	11	12	13 3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권고) (법정기한: 11/16(월))	14
15	16	17	18	19	20	21
22 소설	23 음 10.15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이사회

- ✔ 3분기 보고서 의결 (10-11월 중)

회사

3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
- ✔ 3분기 배당 의결 (10-11월 중)

회사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관 또는 이사회에 따른 배당 지급 시기 예외)

감사/감사위원회

- ✔ 외부감사인 3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 수령 (10-11월 중)
-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수령 (10-11월 중)
- ✔ 금융사 및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이사회·감사위원회 캘린더 안내 및 전제사항(중요): 본 캘린더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범용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월별 필수업무 및 권고사항을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별 자산규모, 사업특성 및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계획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간 일정 수립 시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승열 파트너

회계감사

@ seulim@deloitte.com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현 파트너

인증 및 회계자문 리더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최치호 수석위원

트랜스포메이션&이노베이션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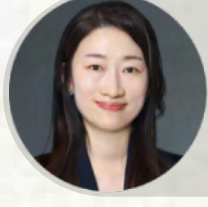
@ chihochoi@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

배예슬 과장
yaba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